

2019
autumn
vol.25

가을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
인도네시아 바두이종족
남영순선교사

M A G A Z I N E
CGNTV

CGNTV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TEL 02)796-9800 FAX 02)749-6638 www.cgntv.net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목차

후원자 스토리

Special

- 2 아무도 모르는 선교사로 - 구경선 작가
- 4 복음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 (주)이든 양윤옥 대표
- 5 어머니 곁에서 함께 보며 - 박성자 후원자

‘함께! 미디어선교’

- 6 CGNTV의 꿈

TV / 모바일

Contents

- 7 가을개편 프로그램
- 8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 10 <목사들의 복수>
- 12 다큐멘터리 <싱글빙글>
- 13 유튜브 <붓소핍>

선교지의 아침

Mission

- 16 네팔 김영미 선교사

국내뉴스 / 해외뉴스

News

- 18 국내
- 20 해외
- 22 편성표
- 24 에필로그 -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



COVER STORY

CGNTV와 함께하는
선교지의 새 하루!
복음을 누리는 온 땅을 꿈꾸며,
‘함께! 미디어선교’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9년 10월 6일(통권 제 25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어대준, 김 란, 추정현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추정현, 박민수,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아무도 모르는 선교사로



내가 되고 싶은 나

구경선 작가는 지난 2017년 9월, KNOCK(이하 '노크') 미니휴먼다큐 <내가 되고 싶은 나>에 출연했던 것을 계기로 CGNTV를 후원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노크'의 다른 영상들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누군가에게 CGNTV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꼭 필요한 통로 같았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CGNTV도 그중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년여 전, 구 작가는 일의 공백기를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수입도 끊기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다. "제가 힘들었던 것은 남들과 똑같이 살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말이죠." 미술 선교 프로그램 '내가 되고 싶은 나'도 그때 마음먹은 사역이었다. 그녀는 선교지 곳곳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꾸도록 돕고 그것을 국내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선물, 베니

구 작가는 청각장애인이다. 또 차츰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다. 구 작가에게 '베니'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 캐릭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큰 두 귀로 그녀 대신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 작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온다. 때론 아빠처럼 따뜻하고, 때론 정말 크신 분이래 함부로 말을 걸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님께 전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고자질도 하는데, 그러면 언제나 제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늦게라도 보내주세요."

구 작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베니를 통해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베니 캐릭터로 계속 꿈을 그려갈 거예요. 베니를 주인공으로 동화책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요."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사로

CGNTV 후원자로 미디어선교도 시작한 구경선 작가. 그녀는 CGNTV의 특별함에 대해 "방송 출연 후에도 제작진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작가는 노크 때 친해진 피디를 '빵PD'라고 부른다. 어느 날 빵PD의 누나와도 만남을 가졌다. 빵PD 누나는 구 작가에게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며 '아무도 모르는 선교사'라고 했다. 그녀는 "듣고 보니 CGNTV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선교사인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CGNTV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원을 통해 시작된 동역의 길, '함께! 미디어선교', 그녀도 이미 '아무도 모르는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주)이든(대표 양윤옥)이 CGNTV 정기후원기업으로 '함께! 미디어선교' 를 위한 동역자로 나섰다. '이든' 의 양윤옥 대표가 평소 CGNTV '생명의 삶' 으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왔던 것이 계기가 됐다. 자신이 누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는 그녀가 사업을 시작한 목적이기도 했다.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든' 은 1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중소의류업체다. '참 좋은' 이라는 뜻의 회사명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회사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실제 영어 표기로도 회사명이 '에덴' 으로 읽힌다. 양 대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문화를 서서히 직원들에게 전하며, 회사가 차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매달 CGNTV를 후원하는 일도 그 소망을 향한 한 걸음이다.

또 양 대표는 선교 현장에서 몸소 미디어의 힘을 느끼면서 CGNTV의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에 힘을 보태게 됐다. "선교지에 전도용 미디어 콘텐츠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이를 십분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양 대표는 CGNTV의 말씀과 예배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직업상 이동이 많아 주로 모바일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가족 여행에서도 CGNTV 예배 라이브는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매개체가 된다.



양 대표는 "앞으로 CGNTV의 좋은 복음 콘텐츠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미디어선교'의 중요성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 곁에서 함께 보며

CGNTV 후원자 박성자 씨는 90세 노모를 위한 방송을 찾던 중, CGNTV를 알게 됐다. 병석에 눕게 되신 어머니를 위해 계속 좋은 말씀과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에도 말씀이 흘러나오고,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부르시며 지내길 바랐다.

박성자 씨는 무작정 여러 채널을 찾아보던 중, CGNTV가 눈에 들어왔다. "제가 바라던 방송이었어요. 상업적이지 않고, 선별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수복음방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기가 됐지만, CGNTV를 알고 난 후, 누구보다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박성자 후원자였다. 지난해부터 매월 꾸준히 정기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방송을 통해 선교에 눈을 뜨면서였다.

CGNTV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후원하는 정성 못지않게, 그녀가 애청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하용조 목사의 말씀' 을 비롯해 '40일 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예배' 등 일상을 CGNTV와 함께 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MK의 고백>부터 신규 제작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박성자 후원자는 "MK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새벽기도와 주일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녀는 "어머니께서 96세로 돌아가시기까지 CGNTV의 말씀들을 참 좋아하셨다"고 덧붙였다.



'함께! 미디어선교' 에 동참한 박성자 후원자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요즘은 영상 미디어의 활용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며, 이에 "주변 어르신들 스마트폰에도 CGNTV를 보실 수 있도록 라이브 앱을 설치해드리며 더욱 CGNTV를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CGNTV의 '꿈'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CGNTV는 그 꿈의 출발점입니다. CGNTV가 2005년 3월 개국 이래 세상의 비즈니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투명 경영과 '클린' 콘텐츠로 지구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후원자들의 신뢰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CGNTV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꿈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

영화관, 군부대에서 25만여 명이 본 <서서평, 친철히 평온하게>처럼 웰메이드 다큐(영화)를 매년 1편 이상 만들고 싶습니다.



둘,

짧은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한 'SOON'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콘텐츠, 그리고 가정과 '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신개념 예배 및 양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셋,

성경을 토대로 만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동성애, 이단 사설 등에 노출된 세대를 위한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넷,

전 세계를 위한 선교 맞춤형콘텐츠 제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방송 장비 교체와 함께 준비된 미디어사역자들을 더 많이 구인하고 싶습니다.

시청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가을개편 프로그램'

CGNTV는 올가을, 예배로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등 시청자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유튜브 등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콘텐츠를 편성해 더 많은 시청자와 은혜를 나눈다.

TV로 만나는 웰메이드 콘텐츠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예배 캠페인 프로그램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한국교회의 난제들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공감 토크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방송

95만 유튜브 유저들이 선택한 <붓소 헌섭>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조셉 붓소의 길거리 전도 프로젝트!
매주 주일 오전 11시 10분 방송

창조과학 다큐멘터리 시리즈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대홍수 사건과 공룡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창조 이야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방송

하루를 풍성하게 만드는 10분 콘텐츠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 50분, 오후 9시 50분 방송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0분 방송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50분 방송

저스트 텐 미닛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 40분 방송



CGNTV와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MC : 은누리교회 문영재 목사

가정예배,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고 있었다면 CGNTV와 함께 시작해보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 실천 편이 그 안내자가 된다.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을 꿈꾸는 캠페인 프로그램 <아빠가> 실천 편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실제 가정예배의 자리로 초청한다.

<아빠가> 실천 편은 각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획됐다. <아빠가>는 9월 말 첫 방송된 '실천 편'에 앞서, 올해 4월 '길라잡이 편'을 통해 가정예배의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했다. 가정예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패널들을 초대해 '가정예배의 중요성', '찬양', '기도', '말씀' 등을 주제로 총 4편에 걸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내용을 나눴다. '실천 편'은 이를 적용한 실제 가정예배의 현장을 선보인다. 스튜디오와 사전에 신청받은 세 가정을 화상으로 연결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포맷이다. 은누리교회 문영재 목사가 스튜디오에서 세 가정과의 예배를 이끌어가고, 이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된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추가하면 안내에 따라 라이브 가정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첫 실시간 라이브 가정예배는 지난 9월 2일 진행됐다. 가수 공휘, 개그우먼 정지민 부부 가정과 강부중 권사(서울시 거주), 김동진 집사

(용인시 거주) 가정이 초등학교 및 미취학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실천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배우고 싶은 가정 등 일반 성도들이 참여해 보다 실제적인 가정예배를 드렸다. 공휘, 정지민 가정은 "가정에서 목사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돼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강 권사는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가정예배가 더 풍성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집사는 "정한 시간에 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아빠가>의 예배 순서는 진행자와 각 가정의 간단한 토크로 문을 연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고, 이어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부른 후, 성경 말씀을 나눈다. 찬양은 가급적 자녀 세대에도 익숙한 곡으로 선정한다. 첫 예배에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함께 불렀다. 메시지는 본문에 따라 진행자가 간결하게 전달한 후 화상 연결된 가정과 실제 삶에서 적용할 부분들을 나눈다. 첫 예배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메시지를 나누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각 가정의 기도 및 감사 제목들을 공유하고, 진행자가 실시간 라이브 댓글과도 소통하며 가정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아빠가>는 실제 가정예배를 드리기에 알맞게 30분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가수 공휘, 개그우먼 정지민 가정

"가정에서 목사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돼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공휘, 정지민 가정-

■ 방송일시: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

<라이브 가정예배 참여 방법>



- Step1.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 Step2. 친구추가 후 안내에 따라 라이브 참여



- Step1. 유튜브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 Step2. 실시간 댓글로 예배 참여



은누리교회 김동진 집사 가정



목양감리교회 강부중 권사 가정



왼쪽부터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웅조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윤광서 영화교회 담임목사, 최원준 안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지금은 ‘복음수다’가 필요한 때다. ‘가정’, ‘교회’, ‘영성과 훈련’, ‘다음세대’, ‘순전한 신앙’, ‘기독교 문화’, ‘소명과 인생’ 등 신앙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이 얼마나 많은가. 오는 10월 14일(월) 오전 8시 첫선을 보이는 CGNTV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에서는 CGNTV가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전 세계에 전하는 TGCK(The Gospel Coalition Korea)와 공동기획하여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복음의 메시지가 퇴색되고 있는 시대, 복음을 골자로 한 목사들의 진솔한 수다, 순전한 ‘복수’가 시작된다.

#1. 워밍업 토크

<목사들의 복수> 세 번째 촬영이 지난 9월 20일 성수동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7월 말 진행된 첫 녹화에 이어, 만남은 동일하게 인근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식탁의 온기를 빌린 일종의 워밍업 시간이었다. 먼저 진행자인 최원준(안양제일교회), 윤광서(영화교회) 목사가 자리한 가운데, 출연자인 이재훈(온누리교회), 이웅조(갈보리교회) 목사가 입장했다.

#2. 복음 목사들

<목사들의 복수>는 각 두 명의 진행자와 출연자, 총 4~5명이 함께한다. 10가지 내외의 주제로 총 20회가 방송되고, 주제마다 출연진이 바뀐다. 이날의 주제는 ‘리더십’. 게스트로 출연한 이재훈,

이웅조 목사는 복음 중심적 신앙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목사들의 복수>의 출연진들은 대부분 국내 복음 운동 연합단체인 TGCK 소속 목사들이다.

#3. 메인 토크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목사의 자리. 많은 영혼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목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선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했을 그들의 대화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인간적이고 궁금한 이야기였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이웅조 목사는 “목사도 죄인”이라며 “그 예배에 설교할 말씀을 스스로 먼저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목사들의 모습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깊고 오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4. 사례별 본격 수다

<목사들의 복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목사들의 생각을 나눈다. 제작진이 제시한 사례 외에도 목사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사례들로 풍성하게 대화가 채워진다. 이번 녹화에는 기존 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청빙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재훈 목사는 급격한 변화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리를 훼손하는 전통은 변화하되 공동체의 가치나 목회자 개인의 선호는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웅조 목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선배 리더가 보여준 길을 잘 따라가며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목회자는 예수를 따르기에 이 말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예수를 따라 살 때 거룩한 리더십이 세워진다. 이재훈 목사는 자신의 멘토였던故 하용조 목사를 떠올리며 비전을 제시했던 선배의 모습을 나눴다. 비전과 리더십을 함께 갖춘 선배를 따르고 싶었지만, 정작故 하용조 목사는 자신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했다.

#5. 결론은 복음

네 명의 목사는 예수를 잘 따라가는 리더십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회를 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목사들의 고민은 한국교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유쾌한 수다는 10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만나볼 수 있다.

■ 방송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방송



MC :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윤광서 목사(영화교회)

싱글빙글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

특집 다큐멘터리 <싱글빙글>은 사별로 홀로된 엄마들, 소위 '싱글맘'이라 불리는 이들의 '오늘'을 담았다. 슬픔 가운데 그저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순간, 아픔을 딛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간 모습을 담은 싱글맘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싱글빙글>이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내레이션 : 배우 신애라



■ 다시보기 :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YouTube 'CGNTV' 채널

“인생의 끝에서 다시”

다큐멘터리 <싱글빙글>은 어느 싱글맘의 간증 글에서 시작됐다. “인생의 끝에서 다시 인생이 시작됐다”는 고백에 강한 인상을 받은 제작진이, 실제 그들의 삶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싱글빙글>은 네 명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싱글맘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5살 된 아들과 살고 있는 허진 씨, 2004년부터 중1 아들, 초등 4학년 딸을 홀로 키우게 된 정순자 씨, 14년 전 예고도 없이 뇌졸중으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빚까지 책임지게 된 박선미 씨, 홀로 된 지 33년 어느덧 손자까지 안아보게 된 김삼임 씨다. 네 사람 모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아이들을 위해 정신없이 생업 전선에 뛰어든 엄마들이었다. 건강에 적신호도 찾아오고, 매 순간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녀들은 “절망의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병원보다 먼저 찾은 곳이 기도의 골방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누군가 용기 얻기를...”

예수를 믿는 싱글맘들의 모임 '다비다자매회'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다비다자매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싱글빙글>에서는 다큐멘터리의 네 주인공이 속해 있기도 한 '다비다자매회'의 모습을 비추며,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나가는 싱글맘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이에 CGNTV는 <싱글빙글> 방송을 앞두고, 지난 9월 2일 '다비다자매회' 모임에서 작은 시사회를 열었다. 영상을 통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시사 후, CGNTV에 저마다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우리의 슬픔, 기쁨, 모두 있는 그대로 제작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복 받은 인생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싱글빙글>의 이기범 PD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라며, “다큐를 통해 낙심하고 웅크리고 있는 한 영혼이 빛 되신 예수께로, 또 다비다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유튜브(YouTube)로 쏘아올린 전도이야기,

붓소핍

지난 8월 16일 공개됐던 열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붓소핍> 시즌 1이 마무리됐다.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을 통해 선보인 <붓소핍>은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청년 '조셉 붓소' (이하 조셉)가 거리의 전도자가 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담았다.

<붓소핍>은 통합 조회 수 100만 건을 넘어서며 많은 유튜브 이용자에게 도전과 은혜를 전했다. 시청자들의 5천 개에 육박하는 댓글 중에는 석촌호수 편에서 만난 한 청년의 댓글도 있었다. 그는 조셉을 만났을 때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고, 그 후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서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내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붓소형처럼 최대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김*현)” 등 조셉의 모습을 보고 노방전도에 도전하겠다는 댓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조셉은 <붓소핍>을 진행하면서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에 용기가 안 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힘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보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붓소핍>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한다는 조셉의 고백에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붓소핍> 시즌 2가 기획 중이다. 시즌 1의 에피소드마다 <붓소핍>과 함께 하고 싶다는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즌2에서는 조셉의 전도를 '보는' 것에서 더해 실제로 함께 전도를 '하는' 모습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응모를 받았다.

오는 11월 시작될 <붓소핍> 시즌 2, 한국교회에 전도 문화를 확산시켜 성도들에게는 도전율, 비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붓소핍>을 주변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 유튜브 'KNOCK노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보냄으로 이 도전에 함께할 수 있다.

시청방법

CGNTV : 매주 주일 오전 11시 10분 방송
YouTube : '붓소핍' 또는 'KNOCK노크' 검색



포토에세이

케냐의 아이들

2019 CGNTV



선교지로 찾아와 준 방송

네팔 김영미 선교사

지난 여름, CGNTV 직원 아웃리치 팀이 네팔에서 사역 중인 김영미 선교사를 찾았다. 2013년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CGNTV는 존재만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가족 같아요.” 2011년 CGNTV 안테나를 설치 받은 김 선교사의 말처럼, 이 만남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계속되고 있다. 6년여 만에 CGNTV를 다시 맞은 김 선교사에게 CGNTV와의 동역 스토리를 들어봤다.

네팔 김영미 선교사는 매 주일, 한국에 있는 듯 CGNTV로 예배를 드린다. 네팔은, 네팔력에 따라 토요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 사역과 예배는 하루 앞서 토요일에 진행된다. 김 선교사는 2011년 10월, 네팔로 파송 받은 그해, CGNTV를 설치 받았다. 험한 산악 지대에서 종일 네팔어를 써야 하는 환경 가운데, 그녀는 “한국과 거리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CGNTV를 통해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누렸다”고 했다.

네팔로 파송 되기 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4년여간 사역을 펼쳤던 터라, 김 선교사에게 CGNTV 효과는 더욱 피부로 와닿는 일이었다. 그녀는 “선교가 더 이상 홀로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라며, “매 주일 감사하고 감격했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 선교사는 그림던 가족을 만나듯, 2013년, CGNTV 직원들로 구성된 네팔 아웃리치 팀을 맞이했다.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펼치며, 방송이 주는 감동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김 선교사는 “한 분 한 분이 그저 방송사 직원이 아닌 헌신된 사역자들 같았다”며 “한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요, 동역자였다”고 했다.

올해도 CGNTV 직원 아웃리치 팀이 다시 한 번 김 선교사를 찾았다. 험하고 먼 곳으로 주저 없이 찾아와 준 그들을 보며, 김 선교사는 소중한 만남에 감사해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잠시 고민도 들었다. 지난해 8월부터 네팔의 종교법이 강화돼 노방 전도와 여러 사역 등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도 중에 김 선교사에게 든 마음은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와 네팔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녀가 아웃리치 팀에게 부탁한 사역도 “이 땅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주시고, 네팔 사람



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십시오”였다.

김 선교사와 아웃리치 팀은 네팔 중서부 ‘네팔간지’와 극서부 ‘견편팔’ 지역을 오가며 사역을 펼쳤다. 이 지역들은 김 선교사가 ‘행복의 집 (Happy house)’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곳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문해 교실’과 ‘방과 후 학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다. 문맹률이 높은 네팔 소외 계층인 여성들을 교육해,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꾸리도록 돕는다. 또 힌두교, 무슬림, 불교 가정의 아이들이 즐겁게 찾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누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행복의 집’ 비전이다.

김 선교사는 8명의 아웃리치 팀원들과 사소한 부분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 다 표현이 안된다”고 고백했다. 또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은 분명 귀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리치 팀은 ‘행복의 집’ 식구들을 위해 예코백을 선물하고 함께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현지 사역자들의 영적 충족과 말씀 공부를 위해 CGNTV 안테나도 설치했다. 김 선교사와 CGNTV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1.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의 기도하는 시간
2. '여성 문해 교실' 수업 중
3. 2019 CGNTV 아웃리치 팀과 함께
4. '해피하우스' 학생들과 함께



CGNTV 국내뉴스



성령과 함께 선교사로, 예배자로 더 멀리 더 가까이

2019 CGNTV 직원 아웃리치가 지난 6월 발대 예배를 시작으로 총 해외 12개 팀, 국내 2팀으로 진행됐다. 해외 5년 프로젝트로 시작된 올해 아웃리치는 선교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리서치와 선교 마인드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외 아웃리치는 네팔, 인도, 일본(구마모토, 치바현),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 라오스, 이집트, 케냐, 프랑스 등에서, 국내 아웃리치는 함안 동서비전교회와 청송 안덕제일교회에서 이뤄졌다. 인도 현지 기독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섬겼던 한 직원은 "아이들 중엔 무슬림 가정에서 핍박받는 아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는 모습과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프랑스 아웃리치팀은 무슬림을 위한 성경 배포 사역을 도왔으며, 라오스 아웃리치팀은 CGNTV 안테나 설치 사역과 함께 다규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회를 가졌다. 일본 치바현에서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참여한 미디어아카데미와 노방전도를, 네팔 간지 지역에서는 어린이 및 여성들의 예배 사역을 도왔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직원들은 CGNTV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선교지를 위한 중보자로 동역할 것을 다짐했다.

아웃리치 이후, 동서비전교회 후원을 위한 '일일카페' 개최

지난 6월,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아웃리치팀이 2018년 KNOCK 미니휴먼다큐 <리틀함아니스트>를 통해 소개됐던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동서비전교회를 찾았다. 2017년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부터 이어진 인연은 아웃리치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CGNTV 직원들이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당시 동서비전교회의 차량이 노후되어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된 아웃리치팀은 교회 차량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본사로 돌아와 CGNTV 직원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일일 카페를 열었다. 그 뜻에 마음을 함께 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후원 목표금액인 1백만 원을 달성해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KNOCK 미니콰 시리즈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에서 수상

CGNTV의 유튜브 콘텐츠 브랜드 'KNOCK 미니콰 시리즈'가 지난 8월 23일 개최된 '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 시상식에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상>을 수상했다. 전세계 웹 콘텐츠 영화제인 '2019 서울 웹페스트 영화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국제 영화제로 30여 개국에서 230여 개 작품이 출품되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KNOCK 미니콰 시리즈'는 기독교 콘텐츠로서는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하면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출을 맡은 황지수PD는 "크리스천 콘텐츠도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며 "매력 있는 콘텐츠로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NOCK 미니콰 시리즈'는 <무리수>, <마미웨이> 두 작품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친구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공개되어 특히 10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KNOCK 미니콰 시리즈'는 KNOCK노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드라마 <고고송>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

CGNTV 드라마 <고고송>이 영화 버전으로 제작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됐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음악영화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영화제다.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장편 부문에 초청된 <고고송>은 8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메가박스 제천에서 상영됐다. 특히 9일 상영에는 연출 홍현정 감독과 주연배우 윤은혜, 지일주가 참석해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측은 "이해할 수 없었던 가족을 연결하는 매개로 음악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고고송>은 영화 속 음악의 폭넓은 표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초청 이유

를 설명했다. 결혼을 앞둔 선화(윤은혜 분)와 그의 아버지 철수(성기훈 분)의 갈등이 음악으로 허물어지는 모습이 한국 음악영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 1월 CGNTV를 통해 방영된 본격 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은 방송 이후 유튜브 CGNTV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총 누적조회수 1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성운영위, 'CGNTV 후원을 위한 작은 바자회' 개최

CGNTV 미디어 사역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여성운영위원회 주최로 6월 23일 주일 온누리교회 양재와 남양주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바자회는 착한 가격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CGNTV 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운영위원들은 매주 토요일 준비모임을 갖는 한편 바자회 당일 까지 두 달간 릴레이 기도를 이어왔다. 또한 CGNTV 사역에 공감하는 기업에서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양질의 상품을 협찬하여 풍성하게 이뤄졌다. 정상건 운영위원장은 "CGNTV 후원 확대를 위해 여성운영위원들과 양재 및 남양주 캠퍼스 팀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약 3천여만 원으로 전액 CGN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CGNTV 해외뉴스



인도네시아 CGNTV_개국 5주년 감사예배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감사예배를 8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드렸다. CGNTV 이재훈 이사장(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용경 대표, 밤방 위자야 담임목사(GKPB Fajar Pengharapan Bandung), 로니 만당 복음주의교회협의회 총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감사예배는 워십댄스팀 '노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교회협의회'의 특송, 헨리넷 목사의 축사, 밤방 위자야 목사의 설교, 이재훈 이사장의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이사장은

“앞으로도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CGNTV 인도네시아 지사는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바탕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인도네시아 라이프 채널 탑 30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헨리넷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총회장은 “CGNTV 인도네시아 지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CGNTV를 통해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 교회가 동역하길 바란다”로 전했다. 밤방 위자야 목사는 “CGNTV는 젊은 세대를 섬기는데 아주 탁월한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8월 29일에는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개국 5주년 특별 세미나가 아바라브 교회에서 열렸다.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이사장, 벨스 제닝스 박사, 이용규 선교사 등이 강의했다. 한편, 이 기간에 감사예배뿐 아니라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에서 CGNTV 글로벌 운영위원회 비전 모임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기업 단체(FGBMFI)와 한국 CCF(Christian CEO Forum)가 함께 리더십 포럼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교회협의회 고마르 고클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선교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선교 현황, CGNTV 일본, 대만, 태국, 미주지사, CCF 소개 등을 했다. 참석자들은 CGNTV의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미주 CGNTV_얼바인온누리교회 후원행사

미주 CGNTV는 지난 9월 22일 얼바인온누리교회에서 후원약정의 날 행사를 가졌다. CGNTV 이용경 대표가 직접 미주를 방문하여 진행된 이번 후원약정행사는 총 6번의 예배에서 후원영상을 시청하고 엘트리 챔버의 특별찬양과 함께 약정시간을 가졌다. CGNTV의 미디어선교 비전에 공감한 200명의 성도들이 후원자로 동참해 주었으며, CGNTV는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선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만 CGNTV_대만교회와 함께 문화선교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만 CGNTV는 온누리교회 분당B 공동체, 뮤지컬 찬양팀과 함께 대만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룽'지역에서 문화선교를 진행했다. 지룽 지역은 항구도시로 여러 수상 송배가 만연해 있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다. 이번 단기선교는 대만침례교연합회 소속인 '북동구침례교연합회'와 연합으로 진행되었으며, '태한의 밤(台韓之夜)'이라는 이름으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대만 지룽지역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틀간의 문화전도집회에 200여 명의 대만성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전도대상자 9명이 결신했다. 분당B 공동체와 뮤지컬 찬양팀의 대만 단기선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귀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했다.



일본 CGNTV_오카야마 직원 아웃리치

일본 CGNTV는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오카야마 직원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목회자의 부재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교회, 가정 예배로 주일을 지키는 성도 자택 등 두 곳에 안테나를 설치했다. 오카야마는 작년 서일본대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열심히 복구 중이다. 겉보기에는 많이 정돈된 것 같아도 저녁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가했던 한 직원은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 CGNTV_태국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 개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찬양 집회 'Closer Worship Night'가 9월 27일 오후 6시 태국 CCT 교단 빌딩에서 열렸다. 태국 CGNTV 주최로 열린 'Closer Worship Night'는 태국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로 Grateful Band 태국 찬양워십팀이 함께했다. 6백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본 찬양 집회가 태국 청년들의 부흥에 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05:4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2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1:10 붓소헌설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6:4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08: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11: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06: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2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동래중앙교회- 11: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4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7:20 [말씀]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네트워크) 08:0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11: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06: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7: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0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0:10 [말씀] 유관석 목사(성광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11:2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2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8:00 나침반 플러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9:40 CGN 비전특강 10:20 이재훈 목사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1: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4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00 [말씀]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08:4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08:5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구약 편> 11: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30 켈센 프랭클린의 부흥 1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7: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0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4: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CCC) 16:1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4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17:2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17: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00 [말씀]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13: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4:40 저스트 텐 미닛 <위스킹> 14:50 [말씀]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16:1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4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20 크레이그 그로헬의 관계의 목표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4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10 [다큐]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16:4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가림의교회) 17:20 케빈 드영의 결혼의 목적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13:0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머스> 14:5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16:4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 17:20 카일 아이들먼의 크리스천의 우선순위 17: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00 [말씀] 마크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13:4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4:40 저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씩스티원> 14:5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5:30 [세미나] 이계호 교수의 태초 먹거리 16:3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17:20 [컨퍼런스] 인투 더 월드 17: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2: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50 붓소헌설 13:00 [다큐]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13:30 예수님이 좋아요 13: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4: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5: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16: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00 KNOCK 21:1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분방) 23: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구약 편> 23:10 [다큐]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18:3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50 [세미나] 선교하시는 하나님 21:0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머스>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맥스 루케이도의 흘러넘치는 은혜 22: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10 [세미나] 박영덕 목사의 새롭게 읽는 로마서 00:5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8:3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9:50 [세미나] 2019 IBA 비즈니스선교 컨퍼런스 21:0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씩스티원>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켈센 프랭클린의 부흥 22: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10 [세미나] 부모 마음 근육키우기 00: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18:3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1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19:50 [세미나] 기독교 고전문학과 영성 21: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데이비드 플랫의 미션 22:3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3:10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8:3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19:1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9:50 [세미나] 스토리텔링 조직신학 21:40 저스트 텐 미닛 <위스킹>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스티븐 엄의 하나님의 사람 22: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3:10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18:3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9:1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9:50 [세미나] 2019 온누리 회복세미나 <임마누엘> 21:40 붓소헌설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R.T. 켈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22: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10 CGN 비전특강	18:00 [말씀]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네트워크) 18: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9:40 미니콘서트 쉼2 19: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0: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1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4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구약 편> 23:10 [세미나] 온누리 부흥축제

이 가을에도 CGNTV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기를

이곳 큰항아리골 산마루예수공동체(평창군 대화면 항골) 해발 700미터 깊은 산골짜기도 어느덧 가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 산 위에 높푸른 하늘을 내려주시고 산골짜기 흩어져 있는 돌과 바위는 뚜렷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산비탈 밭에는 우리가 흘린 땀보다 더 큰 풍요함을 선물하시고, 고추는 비닐하우스마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손을 놓고 기도를 마친 한적한 시간, 손안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CGNTV가 스마트폰을 통해 복음을 전해 줍니다. 복된 소식과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리려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온누리 곳곳에서 그러하지 않을까! CGNTV가 새로운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위성TV를 통하여 온누리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예언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었는가! 오늘에 이르러, 스마트폰 안에 자리 잡은 CGNTV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시공간의 벽을 넘어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새로운 시대의 선포와 선교의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며 축복이다. 그리고 선교지 복음의 증언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CGNTV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불꽃 같은 도구가 아닐까!’

이 가을 복음 듣기를 갈망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전율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CGNTV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담임목사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강종도, 고미애, 고현준, 광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선래, 김성규,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희, 감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준홍,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경화,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재두, 박지수, 박진두,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배병태, 백종신,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재열,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안해욱,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도훈, 오 명, 오범규, 오이식,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서정, 이석일, 이영태, 이영희, 이웅만, 이용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경, 이희연, 임동욱, 임상범,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상기, 정윤희,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주영재, 지성환, 진삼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훈학,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159번 (프리미엄형 상품)
- ▶ ch.550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ch.271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팟빵)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CGNTV 웹페이지

CGNTV 웹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CGNTV 웹페이지 : www.cgntv.net

CGNTV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CGNTV 소셜&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CGNTV', 'CGNTV SOON', 'KNOCK노크' 검색
- facebook 'CGNTV', 'KNOCK노크' 검색